

麗元聯合軍의 日本征伐과 『東方見聞錄』

李 在 範
(경기대 교수)

1. 서 론
2.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고려 및 동아시아 관련 기사
3. 『동방견문록』에 소개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4. 결 론

1. 서 론

(1) 문제제기

고려와 원의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한 것은 세계사적인 대사건이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원이 고려·송·만주 등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으킨 두 차례의 원정은 패배로 끝났다. 세계 전쟁사 가운데 이번 중의 하나로 꼽히는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¹⁾(일본정벌로 약함)은 일본의 승

리로 결말이 났다.

이 전쟁의 내용은 당시에 세계를 여행했던 많은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전쟁의 내용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²⁾에도 수록되어 지금의 유럽지역에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일본정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고 일본이라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에 대한 소개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쟁의 원인에서부터 경과 및 결과, 그리고 난과당한 패잔병의 활동까지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구성되어 있다.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일본정벌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개관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 자체를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³⁾ 또한 누락된 내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제1차 정벌과 고려의 참전국으로서의 역할 등도 무시되어 있다. 당시 『동방견문록』은 대단한 베스트 셀러였다고 한다.⁴⁾ 따라서 『동방견문록』에 채록되어 유럽세계에 알려진 일본정벌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서 많은 오류를 지닌 채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동방 사정을 알려고 하는 유럽인들

- 1)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관해서는 여러 역사 술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麗元’ 혹은 ‘麗蒙聯合軍의 日本征伐’이라고 사용된다. 이보다 전쟁 당시에는 征東이라는 술어가 자주 보인다. 일본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였던 때의 연호를 따 ‘文永の役’, ‘弘安の役’이나 ‘異國合戰’ 등으로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元寇’, ‘蒙古襲來’ 등 상대방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비칭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 2) 『동방견문록』은 본래 『세계의 서술』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또는 『백만의 책(서)』으로 불렸다고 한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목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호동(『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된다.
- 3) 『동방견문록』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인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오랜 기간 중국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부터 최근에는 『동방견문록』이 마르코 폴로의 저작이 아니라는 견해(『몽골세계제국』, 스기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회/김장구/양영우 옮김, 신서원, 1999)까지 다양하다. 이에 대한 것은 앞의 김호동의 연구를 참조할 것.
- 4) 『몽골세계제국』, 10쪽.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택해지는 책이 『동방견문록』이란 점을 상기하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은 검토되고 비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일본정벌에 관한 기사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정벌군에 관한 기사를 원인, 결과 등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내용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및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전문기나 일기 등 개인의 관찰에 의하여 이야기된 역사적 사실의 한계를 알게 하는 한편, 고려가 참전국으로 활동했던 여원연합군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사 정리 및 최근의 연구동향

일본원정에 대한 연구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일본이 압도한다. 고려와 원의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개설서나 교과서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이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자인 일본은 자국의 최대의 역사적 승전을 일본원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전쟁은 현재의 일본 국수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일본원정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일본은 자신들이 신의 보호를 받는 신국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여긴다. 이때 자신들을 도와 준 자연현상이 바로 神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본인의 지혜와 단결을 과시한 방어전이었다고도 말한다. 또한 신무기를 앞세운 몽고 야만 유목민의 침구를 문명 일본이 침입을 격퇴한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한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결과는 엄청나다. 이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양의 나열만으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야 한다.

일본에서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대강의 전모를 살펴보면 그 효시는 대체로 명치유신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몽고습래관계문헌목록』에 따르면 1880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약 1천편에 달하는 논저를 수록해 두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연구를 전부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제목만을 일별하면 전투사에서부터 여원연합군의 신무기였던 鐵砲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연구가 『元寇の新研究』(池内宏), 『元寇』(旗田巍), 『蒙古研究史論』(川添昭二), 『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太田弘毅)-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제한된 연구 결과만이 나와 있다.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김위현, 박형표, 이운규 등의 연구가 있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실정이다. 최근에 채상식에 의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나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활기 띤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근래에 들어 대륙잡지에 소개된 정도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구가 부진한 것은 그다지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으리라는 점에서 수궁이 간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학문적 연구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도 최근 부쩍 늘어났다. 2001년 봄부터 일본 국영방송에서는 일본원정 당시의 집권자였던 北條時宗을 영웅화하여 대하 드라마를 방영하였다. 이 드라마는 대단히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였고, 시청률도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북조시종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막아 낸 영웅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최근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일부 국수주의적 성향과 짝하여 방영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본다. 또 같은 해에 福岡市立博物館에서 ‘北條時宗とその時代’라는 제명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2.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고려 및 동아시아 관련 기사

동방견문록이 작성될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가 존속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얼마간의 기사가 동방견문록에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 『동방견문록』에는 고려 관련기사가 거의 없다. 고려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대카안은 나얀이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그를 카팻에 말아 넣은 뒤 여기저기로 거칠게 끌고 다녀서 죽었던 것이다. 그를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까닭은 황제 일족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기를, 그래서 태양도 공기도 그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대카안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모든 병사들과 신하들이 와서 복속했다. 내가 그 네 지방의 이름을 말해 주겠다. 첫째는 초르차, 둘째는 카울리, 셋째는 바르스쿨, 넷째는 시킨팅주였다.⁵⁾

고려와 관련되는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에서 나얀이 죽은 뒤 복속한 두 번째 지방인 카울리가 유일하다. 카울리가 고려를 말한다는 것은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카울리의 위치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카울리라는 명칭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카울리를 고려라고 했을 때, 고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카울리가 고려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다. 위의 나얀은 乃顔과 같은 인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1287년 쿠빌라이의 친정에 의해 진압되었다.

5) 『동방견문록』, 224~340쪽.

그런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카울리는 1287년 이후에 처음 원에 복속되었거나, 복속상태에 있다가 나얀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평정후 다시 복속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고려는 이미 1287년보다 훨씬 전인 1270년에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함으로서 사실상 원에 대한 항거는 끝났던 것이다. 오히려 나얀의 한패였던 哈丹이 1290년에 고려로 몰려오자 원과 손을 잡고 이를 격퇴하는데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나얀의 반란이 진압되자 복속한 카울리가 고려인지, 아니면 마르코 폴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지 혼란이 가중된다.

이처럼 혼란을 보이고 있는 『동방견문록』의 동아시아에 관한 내용은 마르코 폴로가 장기간 대도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자체마저 의심을 품게 한다. 그가 서남아시아 사정에는 밝은데⁶⁾ 비해 동아시아 사정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르코 폴로는 오히려 그 반대라야 마땅하다. 그는 1274년 대도에 와서 17년동안이나 쿠빌라이의 ‘특별신하’로 머물렀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정에 더 밝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견문록』을 보면 동아시아에 대한 내용은 많이 누락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사실과 크게 다른 점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을 서술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동방견문록』에는 일본 관련기사도 적지 않은 양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실성에도 의심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일본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동방견문록』에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제159장과 제160장에 수록되어 있다.⁷⁾ 일본에 대한 개관은 제159장 전반부에 수록되어 있고, 그 이하부터 160장은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관한 내용이다. 『동방견문록』에

6) 1286년 일칸국의 군주 아르군어 죽은 부인을 대신할 왕녀를 보내 달라고 하자 쿠빌라이는 마르코 폴로 일가와 함께 보냈는데, 이 일행은 26개월만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폴로 일행이 조착하자 아르군은 사망한 뒤라 동생 게이하투가 자리를 이어 폴로 일행은 아르군의 아들 가잔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 이와같은 주장을 일칸측 기록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이다(『동방견문록』, 19~20쪽).

7)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동방견문록』은 앞에서 소개한 김호동의 번역본이다. 이하 『동방견문록』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부언이 없는 한 김호동의 역서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서는 치핑구라고 불리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치핑구는 육지에서 동쪽으로 해상 1,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⁸⁾

일본의 위치를 육지에서 동쪽으로 2,400km(1,5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육지의 어느 지점에서 일본의 어느 지점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우리나라이다.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100km를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한 육지는 출발점이 어디일까? 마르코 폴로가 어느 도시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추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는 교토와 가마쿠라이므로, 이 두 도시에서 역으로 2,400km가 되는 지점에 있는 큰 도시들을 보면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대도나 泉州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모두 마르코 폴로의 여행 경로에서 직접 들렀거나 머물렀던 지역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이나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를 꼽자면 북경보다는 천주나 항주 등 남방의 도시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르코 폴로는 대도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천주와 항주에 대해서 경이로운 모습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마르코 폴로의 행적에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 그는 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남방에서 들은 이야기로 채웠을까? 마르코 폴로의 행적을 보면 그는 직·간접으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274년 여름에 대도에 들어가 17년동안이나 줄곧 쿠빌라이의 주변에 있었다면 일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대

8) 『동방견문록』, 416쪽.

했을 것이다. 마르코 폴로가 대도에 도착한 1274년 10월에는 제1차 일본정벌이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7년 뒤인 1281년에는 제2차 일본정벌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제3차 일본정벌을 하기 위하여 쿠빌라이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폴로는 후술할 바와 같이 거의 무지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황금이 많은 나라라고 하면 다른 나라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大商人 마르코 폴로로서 일본에 대한 정보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대도에 17년동안이나 거주하였던 마르코 폴로로서는 동방의 지리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일칸국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록이 남게 된 것은 마르코 폴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역이 일본으로부터 1,50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마르코 폴로는 항해사이므로 거리 감각이 남달랐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은 마르코 폴로 자신이 들었던 지점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마르코 폴로가 17년동안이나 대도에서 머물렀는데, 일본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하필 1,5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서 마르코 폴로가 대도에 가 본 적이 없거나, 혹 대도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무리가 될까?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된다. 다음의 내용은 일본의 주민들의 생김새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면 마르코 폴로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지역은 북쪽보다는 남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치핑구) 매우 큰 섬이고, 주민들은 피부가 희고 깨끗하며 잘생겼다.⁹⁾

KCS I

9) 『동방견문록』, 416쪽.

이 내용은 일본주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부가 희고 깨끗하며 잘 생겼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이야기가 마르코 폴로 자신이 일본인을 직접 보거나 일본인을 그린 그림을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다. 마르코 폴로 자신이 직접 일본인을 대했다면 자신과 비교하여 피부가 하얗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 또한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아마도 마르코 폴로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주위와 비교하여 일본인의 생김새에 대하여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일본인과 크게 생김새가 다르지 않은 북방에서보다 얼굴이 일본인보다 검고 체구가 왜소한 남방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사정에 관한 마르코 폴로의 구술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일본의 당시 경제를 굉장히 풍요로운 것으로 구술하였다.

(치평구) 이상승배자들이고 다른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립해 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그곳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금이 나기 때문에 금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아무도 그 섬에서 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인도 어떤 사람도 대륙에서 그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금을 갖고 있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섬 군주의 궁궐이다. 그는 온통 순금으로 뒤덮인 멋진 궁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집이나 교회를 납판으로 덮듯이 금으로 씌워 놓았다.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지는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그의 궁실에 있는 보도들 역시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두 손가락 정도나 된다. 궁궐의 모든 곳들과 접견실과 창문들 역시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궁궐이 지닌 가치는 누가 그것을 계산하여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그들은 진주도 많이 갖고 있는데, 붉은 색으로 매우 아름다우며 크고도

동글다. 그것은 흰색 진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 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매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시킨다. 그러나 매장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나 그 입에 이러한 진주 한 알을 물려주는 관습이 지켜지고 있다.> 각종 다른 보석들도 많으며 이 섬이 지닌 재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¹⁰⁾

위의 내용에서 일본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르코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불교를 우상숭배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의 신도와 신앙형태는 기독교도인 마르코 폴로에게는 직접 보았건 들었건 간에 우상숭배자로 간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어떠한 현상을 말한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당시 일본에는 많은 목조건물에 금물을 입혔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닌지.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 경제사정을 매우 풍요롭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금은보화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나라라는 사실이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 원인이 되었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다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3. 『동방견문록』에 소개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앞에서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고려 또는 일본의 사정이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대한

10) 『동방견문록』, 416~417쪽.

내용을 살펴보면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내용과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자. 『동방견문록』에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누군가가 대카안에게 바로 이 같은 엄청난 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지금의 통치자인 쿠블라이는 그 섬을 정복하고 싶어 했다.¹¹⁾

위의 내용에 따르면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의 원인은 일본의 풍요로움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벌의 원인은 쿠빌라이의 세계 정복 야욕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풍요가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쿠빌라이는 일본정벌 이전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사할린 정벌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 정벌은 실패하였지만, 그 목적이 사할린의 부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쿠빌라이의 세계 제패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에게는 무엇보다도 재화의 획득이 제일의 목적이었던 까닭에 이러한 추정을 하였던 것은 아닐까?

다음은 정벌군의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정벌군의 편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쿠블라이)는 수많은 베에 기병과 보병을 신고 신하 두 사람에게 지휘하도록 하여 보냈다. 이 신하들 가운데 하나는 이름이 아바칸이고 다른 하나는 본삼진이었다. 이 두 신하는 지혜로우면서도 용맹했다.¹²⁾

11) 『동방견문록』, 417쪽.

12) 『동방견문록』, 417쪽.

정벌군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병종은 기병과 보병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지휘관의 이름이 아바칸과 본삼진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아바칸은 阿塔海이고 본삼진은 范文虎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¹³⁾ 아탑해와 범문호가 지휘관으로 참전한 정벌군 편성은 제2차 일본원정 때의 강남군이다. 그런데 왜 마르코 폴로는 1281년에 실시된 제2차 원정, 그 가운데서도 강남군의 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은 1274년과 1281년의 두 차례 실시되었다.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 10월 3일에 여원연합군은 9백척의 전선에 분승하여 合浦를 출발하였다. 이때의 병력은 고려군 8천명, 초공·인해·수수 6천 7백명, 몽한군 2만 5천명, 계 3만 9천 7백명이었다. 지휘관은 都元帥 忻都, 右副元帥 洪茶丘, 左副元帥 劉復亨, 高麗都督使 金方慶, 右軍 金文庇, 左軍 金侁 등이었다. 이 원정은 대마도와 일기도를 거쳐 큐슈에 도착했으나 큰 바람을 만나¹⁴⁾ 미귀자가 1만 3천 5백여명¹⁵⁾에 이르는 참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패배하였다고 하여도 마르코 폴로가 제1차 원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이 제1차 일본원정이 실시되던 해에 마르코 폴로는 원의 수도인 대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르코 폴로가 대도에 도착한 시기는 1274년 여름이고, 제1차 정벌은 10월에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제1차 일본 정벌에 대하여 상당한 지견이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제1차 정벌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마르코 폴로가 이 시기에 대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마저 믿기 어렵게 한다. 물론 그가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세히 알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는 그로부터 17년 간이나 더 체류하였다. 그 기간에 제1차 원정에 대하여 좀 더 구

13) 『동방견문록』, 417쪽의 주-3 참조.

14) 『고려사』 권28 충렬왕 즉위년 동10월 기사.

15) 『고려사』 권28 충렬왕 즉위년 11월 기해.

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은 제2차 정벌 내용을 이야기한데서 더욱 증폭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

그들은 차이톤과 킨사이에서 출항해서 바다를 향해하여 그 섬까지 갔다. 그들은 그곳에 상륙하여 많은 평원과 부락들을 함락시켰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재단이 그들에게 닥쳐 도시나 성채는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다.¹⁶⁾

위의 내용 중에 나오는 원정군의 출발 지점인 차이톤은 泉州,¹⁷⁾ 킨사이는 杭州¹⁸⁾라고 한다.¹⁹⁾ 제2차 원정때 강남군이 출발했던 지역이다. 이 내용에서도 확인되다시피 마르코 폴로는 오직 강남군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제2차 원정군의 편성은 제1차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쿠빌라이는 군사력을 3배 이상 증강하여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이때의 편성은 고려·몽고·한의 연합군인 東路軍 4만, 蠻軍(南宋軍) 10만, 계 14만으로 구성되었다. 고려·몽고·한 연합군의 지휘관은 忻都, 洪茶丘, 金方慶이었고, 만군의 지휘관은 앞에서 말한 범문호와 아탑해였다. 이들은 일기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로군은 5월 3일 합포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만군은 이보다 늦게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출발을 했다. 그리고 도착지점도 처음 약속지점이었던 일기도가 아니라 平戶(히라도)로 변경하였다. 한편 고려·몽고·한의 연합군은 鷹導(타카시마)로 이둔하여 있었다. 그러나 『동방견문록』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동로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제1

16) 『동방견문록』, 417쪽.

17) 『동방견문록』, 405쪽의 주-85 참조.

18) 『동방견문록』, 374쪽의 주-46 참조.

19) 제2차 원정군의 출발장소는 종래 慶元(浙江省 寧波) 한곳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분산 출발했으리라는 견해(『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 太田弘毅, 錦正社, 1997)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 원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동방견문록』에 강남군의 사정만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원에 오랫동안 체류했다는 사실에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군사를 14만이나 동원하였고, 쿠빌라이 또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일본정벌에 대하여 17년동안이나 쿠빌라이의 측근에 있으면서 정확히 몰랐다는 것은 마르코 폴로의 대도 장기체류에 대한 진실성에 금이 가게 하는 대목이 되는 것이다.

그런 한편 마르코 폴로가 일본정벌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의 내용 밖에 남길 수 없었던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대답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동남아시아 혹은 중국 남부의 도시에서 들었던 것을 단순히 옮겨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이 전쟁의 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이 두 신하가 서로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날 하루는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어찌나 세차게 불어오는지, 군인들은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배들이 모두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배에 올라 그 섬을 떠나 바다로 들어갔다. 그들이 4마일쯤 갔을 때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고 워낙 많은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쳐서 상당수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부서지지 않은 배들은 바다로 흩어져 난파는 모면했다. 그때 그들은 그 근처에서 그리 크지 않은 또 다른 섬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섬까지 헤쳐간 배들은 그곳에 피신할 수 있게 되었지만, 헤쳐 나가지 못한 배들은 그 섬에 좌초하고 말았다. 난파된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그 섬으로 피신했지만 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성난 바람과 무서운 폭풍이 잠잠해지자 두 신하는 넓은 바다에서 난파를 모면했던 많은 배들을 이끌고 그 섬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그 모두를 배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즉 백인장, 천인장, 만인장들을 배에 타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곳을 출발해서 고향으로의 항해를 시작했다.²⁰⁾

전황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전투의 결과는 두 지휘관의 불화와 바람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제2차 원정도 제1차 원정과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하여 참패로 끝났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난파된 정벌군 가운데 지휘관급 중 상당수는 귀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원정군의 피해는 상당하여 ‘혼도, 홍다구, 범문호 등은 원나라로 돌아갔으나 관군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무려 십만 이상’²¹⁾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그리고 난파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한 정벌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① 이 섬에 피신해 남아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3만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른 배들이 고향을 향해 떠나고 자신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항해를 한 사람들은 고향땅으로 돌아갔다. 떠나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섬에 남아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섬으로 피신한 3만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격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지만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²²⁾
- ② 큰 섬에 있던 군주와 사람들은 적군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는 것과 섬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기뻐했다. 바다가 잠잠해지자마자 그들은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배들을 모아서 타고 곧바로 섬으로 항해해 갔다. 모두 다 섬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즉시 상륙했다.²³⁾

20) 『동방견문록』, 418쪽.

21) 『고려사』 권29 충렬왕 세가 7년 윤8월.

22) 『동방견문록』, 418~419쪽.

23) 『동방견문록』, 419쪽.

- ③ 그 3만명은 적이 모두 물에 내렸기 때문에 타고 온 배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동하여 적이 자기들을 공격하려 오는 사이에 섬의 다른 편에 있다가 재빨리 적의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곧장 그 배에 올라탔다. 그들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곳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²⁴⁾
- ④ 배에 올라탄 그들은 그 섬을 떠나 다른 섬으로 갔다. 그들은 섬에 상륙한 뒤 그 섬의 군주의 깃발과 문장을 갖고 수도를 향해 출발했다. 이 깃발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자기네 군대로 생각해 그들을 시내로 맞아 들였다. 그들은 그곳에 늙은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점령한 뒤, 자신들을 위해 시중을 들어줄 예쁜 여자들을 빼놓고는 모두 밖으로 쫓아 버렸다. 대카안의 군인들은 여러분이 들은 그런 식으로 그 도시를 점령했다. 그 섬의 군주와 군인들은 도시가 점령되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을 보고는 원통함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섬으로 돌아와 그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²⁵⁾
- ⑤ 대카안의 병사들은 7개월 동안 그 도시를 방어하면서, 이런 상황을 대카안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느라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러나 그에게 알릴만한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강화를 맺었는데, 투항하여 그곳에 평생동안 살면 목숨을 살려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강림 후 1269년의 일이었다.²⁶⁾

자료①에서의 이 섬은 다카시마로 인정되고 있다.²⁷⁾ 그리고 위의 자료 ①~⑤는 귀환하지 못한 잔류 원정군에 대한 행동을 알려 주고 있다. 먼저

24) 『동방견문록』, 418쪽.

25) 『동방견문록』, 419~420.

26) 『동방견문록』, 420쪽.

27) 『동방견문록』 418쪽의 주-7 참조.

자료①은 다카시마에 3만의 군사가 잔류하였다는 내용을 전한다. 실제로 당시 다카시마에는 2~3만 정도의 원정군이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는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②도 사실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바로 잔류 원정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료③에서부터 ⑤까지는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자료③을 보면 원정군은 마치 동화처럼 일본군이 타고 온 배를 탈취하여 탈출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④에서는 도읍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자료⑤에서는 7개월 동안이나 적의 도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원정이 있었던 해가 1269년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료③에서 자료⑤까지의 내용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기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일별해 보도록 하자. 당시 다카시마에 잔류하고 있었던 2~3만 정도의 원정군은 장백호라는 인물을 총관으로 추대한 뒤 벌목하여 배를 만들어 귀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공격으로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들은 하카타(博多)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몽골인·한인·고려인들은 모두 처형되고 남송 출신의 新附軍만이 노예가 되어 목숨만 건졌다.²⁸⁾ 이러한 사실은 『동방견문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2차 원정이 있었던 해를 1269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적인 착오이다. 마르코 폴로가 ‘그리스도 강림 후 1269년’이라고 한 해는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오기 전이다. 그리고 일본원정은 1274년과 1281년에 있었고,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1281년의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오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동방견문록』의 역사 자료로서의 위치를 상당히 격하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동방견문록』에 기록된 여원연합군의 전후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28) 旗田巍, 『元寇』, 144쪽(김호동, 『동방견문록』의 420쪽에서 재인용).

사태는 여러분이 들은 대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카안은 그 군대의 사령관이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의 머리를 베도록 했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은 곳인 초르차라는 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했다. 그는 상술한 섬으로 사람을 보내 죽게 할 때는 껍질을 벗긴지 얼마 안 된 들소 가죽으로 그의 손을 푹푹 찢 뒤 단단히 꿰매게 한다. 손을 찢 가죽이 마르면 줄어들어서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을 벗길 수가 없다. 그곳에 버려진 사람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다 풀을 뜯어먹으려면 땅바닥을 기어야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못할 고통을 겪게 된다. 그 신하도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그가 이렇게 처리한 것은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 잘못 처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²⁹⁾

위의 내용대로라면 다카시마에 잔류했던 병사들이 결국에는 귀국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귀국 후 원에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혹하게 했다고 한다. 먼저 사령관이던 신하 가운데 하나의 머리를 베었다고 했다. 이때 사령관으로 신하라고 하면 범문호가 아니면 아탑해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나머지 한 사람은 병사들과 함께 초르차³⁰⁾지역으로 유배되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령관이었던 두명의 신하, 즉 범문호와 아탑해가 참수되거나 여진지역에 유배되었다고한 사실은 실제와는 아주 다르다. 먼저 범문호는 일본원정에서 돌아온 뒤 처벌되기는커녕 1284년 음력 11월 中書左丞, 1287년 음력 2월에는 中書右丞에 보임받았다. 아탑해 역시 1283년 정월 3차 일본원정을 위해 征東行省의 丞相으로 임명되었고, 1285년 음력 10월에는 左丞相으로 승진되었다. 혼도 역시 원정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³¹⁾ 전사자와 귀환자들에게도 포상을 하고 있으며,³²⁾ 쿠빌라이는 고려에 대해서도 ‘왕이 軍事로 수고가 많으므로 내조하지

29) 『동방견문록』, 420~421쪽.

30) 女眞지역이라고 한다(『동방견문록』, 420쪽의 주-9).

31) 『동방견문록』, 421쪽의 주-10 참조.

말라³³⁾는 전갈을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동방견문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혹한 형벌이 가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끝으로 동방견문록에는 제3차 일본원정계획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제3차 원정은 쿠빌라이가 죽음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쿠빌라이가 상당히 집착하였던 계획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쿠빌라이가 죽기 전까지 산견되고 있다. 1283년 3월 을묘일에 중랑장 柳庇가 원나라에서 돌아와 강남의 군대를 징발하여 8월에 일본을 정벌할 것이라고 보고하였고,³⁴⁾ 4월 신묘일에도 원나라에서 塔納 阿孛禿刺를 보내어 전함을 수리하는 것을 독려하는³⁵⁾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4. 결 론

지금까지 『동방견문록』에 기록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로서의 진실성에 유의하면서 검토하여 보았다.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본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은 거의 믿기 어려운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 사료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동방견문록』에 실린 여원연합군과 관련된 내용은 1281년에 시행된

32) 이때의 포상내용은 ‘賞征東功 從乘輿將吏陸散官二階 軍士鈔人三錠 從皇孫將吏陸散官一階 軍士鈔人二錠 死者給其家十錠 凡爲鈔四萬一千四百二十五錠’(『원사』 권15 세조12 지원25년 춘정월 을미: 『이십오사초』 하, 동양학연구소, 1977, 164쪽).

33) ‘中郎將鄭公郎將柳庇還自元帝勅曰王勞於軍事其勿來朝’(『고려사』 권29 충렬왕 7년 9월 을해).

34) 『고려사』권29 충렬왕 9년 3월 을묘.

35) 『고려사』권29 충렬왕 9년 4월 을묘.

제2차 원정에 대한 내용만을 수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내용상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동방견문록』에 1281년의 제2차 원정을 1269년의 사실로 연대를 밝힌 것은 신뢰도에 가장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1281년은 마르코폴로가 대도에 체제하고 있었던 기간이다. 마르코 폴로는 제1차 원정이 있었던 1274년에 대도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제1차 원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가 제1차 원정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제2차 원정을 126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 것은 실제 마르코 폴로가 대도에 갔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해 볼만한 근거도 될 수 있다. 전후처리과정에서도 일본에 잔류한 원정군이 포로가 되어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동방견문록』에는 원으로 귀환하여 처형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가 대도에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달리 보면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여러 사실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일 수 있다.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의 측근에서 17년동안을 ‘특별신하’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전쟁의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서아시아와 중국 동남부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일본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항주나 천주 등에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동방견문록』에 수록된 고려에 관한 기록은 유일하게 한 건이 발견되는데, 이 사실도 실제와는 다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고려를 지칭한다고 여겨졌던 카울리가 고려가 아닌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도 높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처럼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황금의 나라로 기록한 것은 그 뒤 유럽에서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려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은 상대적으로 고려에 대한 호기심을 위축시켰을 것이다. 사실상 당시의 고려는 국제항인 벽란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전개하고 있었던 해상국가였다. 그런데도

당시의 세계에 거의 그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이유는 고려가 몽고의 하나의 속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원정에 있어서 많은 병력과 군선 및 물자를 지원하여 국고가 고갈될 지경이었던 고려의 참전은 역사의 표면에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명분없는 강요된 전쟁의 참여가 빚은 결과일 것으로 추정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03. 11. 5,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여원연합군, 일본정벌, 동방견문록, 고려, 원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Expeditions against Japan by the Goryeo
and Yuan China Combined Forces, and
Description of the World called as *Travels of Marco Polo*

Lee, Jae-Bum

The expeditions against Japan by the *Goryeo* and *Yuan* China Combined Forces was the great incident in the world history. *Goryeo* and *Yuan* China executed two expeditions against Japan, 1274 and 1281, to subjugate Japan, but both campaigns ended in failure.

The history about the expeditions became known to a number of tourists and merchant who were travelling in the East Asia. And the history included in *Description of the World* called as *Travels of Marco Polo* was introduced to the current Europe area. In the journal, the expeditions against Japan was described, but the story about Japan was dealing with an annex. In the journal, the cause of the expeditions, proceedings, results, and activities of the remnants occurred by the shipwreck were recorded. But there are many details about the expeditions against Japan which could not admit as the historical facts in the journal. About the first expedition against Japan is not introduced, and the role of *Goryeo* for the expeditions was disregarded. Furthermore, the year 1281 of the second expedition against Japan was recorded as the year 1269 in the journal was brought the issue on the credibility. Although *Marco Polo* arrived *Tsusima* Island, Japan in 1274 when the first expedition against Japan was executed, he did not mentioned about the first expedition against Japan,

and wrote the year of the second expedition against Japan as the year 1269. Through the facts about the years of the expeditions, I have a question about his travelling around *Tsusima*. *Marco Polo* wrote correctly the circumstances about the West Asia and the Southern parts of China. It is highly possible for him to hear about the expeditions against Japan when he was staying in the Southern parts of China such as *Hangzhou* and *Qianzhou*.

One rerecording fact about *Goryeo* in the journal was introduced, but it is not match with the real fact. Accordingly, *Cauli* to be considered as *Goryeo* until now, is highly possible to be other area.

Nevertheless there are many errors, Japan was recorded as the golden country in the journal. I think that the recording made a great influence to European about Japan. On the contrary, there is no recording fact about *Goryeo* which was prevailing the brisk trade around *Byeokrando* which was a international seaport. It is estimated that *Goryeo* was recognized as a "son-in-law nation" to *Yuan* China and was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expedition against Japan. *Goryeo* wa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warships and the provision of supplies for both invasions, and this constituted a fearsome burden for *Goryeo*. The *Goryeo* could not get any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untries, and could not secure the contributions and justification in the history.

Key Words: Goryeo and Yuan China Combined Forces, expeditions against Japan, Description of the World, Goryeo, Yuan China